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변경인	면담자	이혜숙		
면담장소	송의 목공예 센터	면담지원	정은주		
면담 일시	2022년 10월 4일	회차	3	시간	34분 40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651				
구술 개요	서울에 계단하는 분들과 연이 닿아 협업을 했음. 요즘은 계단이 다양해짐. 벽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부장품, 소형 액자의 수출이 많았음. 김포에서 공장을 하는 게 유리해서 공장을 하다가 imf 때 어려워졌음. 요즘은 가게를 접고 교육을 하고 있음.				
주요 색인어	목재, 가격대, 고무나무, 밀가루, 합판, 요소, 도구, 칼, 계단, 제작 과정, 멋, 도원, 목공 메카, 배다리, 대리점, 대패, 부품, 협업, 스피커, 세운상가, IMF, 도화동, 집성목, 수입, 수업, 집중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근황				00:00:37~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명절 지나고 주말에 비 많이 옴.				00:03:01	
2. 사용 목제				00:00:56~ 00:04:19	
- 소비자의 선호도, 목재의 가격 등 때문에 수종이 바뀌는 경우가 있음.					
- 고무나무는 강질임.					
- 합판을 만들거나 접합할 때 요소와 밀가루를 혼합해서 씀. - 방수합판은 요소 비율이 많고 일반 합판은 밀가루 비율이 많음.					
3. 사용 도구				00:04:20~ 00:06:27	
-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가 다름. - 예전엔 서울역 영춘교 있는데가 목공기구판매 메카였음. 지금은 없음.					
4. 계단 제작 과정				00:06:28~ 00:09:11	
- 한국의 건물이 고급화되면서 계단이 다양해짐.					
5. 목공 거리의 변화				00:09:12~ 00:12:13	
- 76년 당시 도원은 목공의 메카였음.					
- 큰 메이커가 생기면서 경쟁력이 안 생겨 이제는 거의 문 닫음. - 메이커가 판매하는 중간 판매자가 되어버림.					
6. 수출품 제작				00:12:14~ 00:3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부장품 수출 많이 함.- 옛날엔 이런 걸 만들어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주문이 많았음.- 장식, 손잡이 같은 부품 조달했음.- 서울에 계단하는 분들과 인연이 되어서 협업을 하게 됨.- 우드박스 회사 할 때, 처음엔 좋았는데 imf 썸에 조금 어려워짐.- 그때 김포에 있던 작은 경공업들이 한 70~80%가 문 닫았음.- 김포에서 공장을 하는 게 유리- 인천에 연탄 공장이 많았음.- 일할 때 연탄보단 목재 땀음.- 소나무, 오크 참나무로 가구를 만들었음.- 우리나라도 집성목을 만들어보자 했지만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실패했음.- 공장에서 남는 부산물들은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져감.- 만든 품목 중 소형 액자의 수출이 가장 많았음.- 가게는 접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음.		
--	--	--